

##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

차투리카 nil라니(Subasinghage Chathurika Nilani)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현대언어학과 조교수

### 1. 머리말

언어는 지역 사회의 민족 총체성의 기본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스리랑카는 오래전부터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즉, 스리랑카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2,000년 이상이 되는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스리랑카가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는 데까지 지리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스리랑카는 북쪽으로는 인도<sup>1)</sup>, 서쪽으로는 몰디브, 동쪽으로는 니코바르 제도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안다만 제도와 맞닿아 있다. 즉 인도양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해로의 중심으로서 수세기 동안 많은 나라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인도와의 근접성은 스리랑카에 다방면에 걸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영향은 북인도 혹은 인도 아르연과 남인도 혹은 드라비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신탄리즈족이 당시에도 민족의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인도 아르연 출신으로 기원전 500년

1) 인도와는 만나르만과 포크 해협으로 나누어지며, 스리랑카와 아주 근접하게 자리하고 있다.

쯤에 북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온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기원전 3세기부터 스리랑카와 인도 사이에 무역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타밀 종족의 접촉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상인으로 스리랑카를 드나들던 타밀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침입자로 스리랑카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10세기까지는 타밀 민족의 정착이 그리 상당하지는 못 하였다. 인도의 아소카(Ashoka) 황제가 특별 불교 사자를 보내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한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 시대의 불교의 유입이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불교에서는 신자들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으며, 초기부터 승려들은 그들의 속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이나 관례나 예배에서 보존된 신성한 물건들을 기록하는 관습을 개발했다(Godakumbure, 1955). 이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인 장르로는 ‘방사(vamsa)’가 있으며, 2개의 연대기인 ‘마하방사(Mahāvamsa)’와 후기 기록물인 ‘출라방사(Cūlavamsa)’는 스리랑카의 고대 및 중세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인도에서의 다양한 민족의 이주 유입이 스리랑카 사회를 다민족 사회로 형성시켰다.

16세기에 시작된 식민주의가 스리랑카의 언어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언어 정책과 교육 제도 진화의 결정적인 단계가 되었다고 하겠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스리랑카 사회 그리고 신할리즈어가 처음으로 서구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스리랑카는 1505년에 포르투갈로 시작하여, 1658년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1796년 영국까지 440년간 식민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 포르투갈인들은 서부 해안 지방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장려하고 유럽의 물질문명을 전파하여 스리랑카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네덜란드인의 통치 목적은 무역과 인도양의 해군력 독점에 있었으므로 포르투갈과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실시했다. 반면에 영국은 전국에 정치적 명령을 시행하면서 영어 소개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언어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지배 국가들의 언어 정책이 스리랑카의 민족 구성과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현재 언어 상황에 영향을 끼친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해방 이후의 언어 정책에 주목하면서 현재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에 대한 문제 점을 깊이 있게 고찰하겠다.

## 2.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

스리랑카인의 언어로는 신할리즈어, 타밀어와 영어가 있다. 신할리즈어는 인구의 다수인 ‘신할리즈’ 민족의 언어이며, 타밀어는 소수 민족인 타밀과 무슬림 종족의 언어이다. 영어는 매개의 언어(link language) 역할을 한다. 먼저 신할리즈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할리즈어는 인도의 고전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할리즈인의 고유의 언어로 인정된다. 신할리즈어는 인도-아리안(Indo-Aryan)어족에 속하며, 인도의 언어인 힌디어, 우르두어, 벵골어, 마라티어 등의 언어와 유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인도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할리즈어는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할리즈어는 스리랑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이며, 드라비다어(Dravidian Languages)<sup>2)</sup> 언어를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인도 언어와 구별되며 드라비다어의 언어적 특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신할리즈어는 고유의 글씨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인도의

2) 드라비다어족(Dravidian languages)은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의 타밀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족이다.

‘브라흐미’ 문자에서 유래되었다. 불교의 도입과 함께 처음으로 사람들이 쓰기를 익히기 시작했다. 초기 암각문은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동굴 등에서 발견되었다. 신타리즈어로 된 저작물은 10세기부터 확인되는데, 주로 시집이 많았다. 최초의 신타리즈어 문법서인 ‘시다트 상가라바(Sidat Sangarava)’는 13세기에 쓰였으며, 주로 시적 표현을 다루고 있다. 고대의 신타리즈어에 대해 논의할 때 ‘산데샤 카비아(Sandesha Kavya)’<sup>3)</sup>는 빼놓을 수 없는 정교하고도 위대한 문학 장르이다.

천년 동안 깨지지 않은 전통을 지닌 신타리즈어의 쓰기와 문학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장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Coperahewa, S., 2009). 즉 1815~1956년 동안 국어가 영어로 변경되면서 신타리즈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식민 통치 기간은 신타리즈어가 서구 언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영국의 문물들과 함께 외래어가 신타리즈어에 유입되었다. 특히, 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지 지배력이 강하던 시기에 포르투갈어와 영어가 국어가 되면서 수많은 포르투갈 및 영어 외래어가 신타리즈어에 들어왔다.<sup>4)</sup> 신타리즈어의 외래어 중에서 영어 외래어가 현대 신타리즈어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르투갈어 및 영어에서 현재 신타리즈어에 차용된 외래어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3) 산데샤 카비아(Sandesha Kavya)는 스리랑카의 고대 시대의 문학 장르로 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한 문학 작품이다.

4) 네덜란드인들은 포르투갈인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은 네덜란드어를 현지어와 병행하여 쓰는 정책을 택하였으며, 결국 네덜란드어를 공식어로 대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Coperahewa, S., 2011에서 재인용).

표 1 신할리즈어의 외래어

포르투갈어 외래어	포르투갈어	영어 외래어	의미
kamisa(셔츠)	camisa	bus	버스
iskola(학교)	escole	rubber	고무
almariya(장롱)	almario	powder	파우더
paan(빵)	pao	bag	가방
minindoru(측량사)	medidor	canteen	식당

현대 신할리즈어는 양층 언어 현상 즉 2개 언어 사용(Diglossia)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로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확연히 구별되는 언어이다. 현대 표준 신할리즈어로 인식되는 문어체 신할리즈어는 학교에서 교육되는 언어이며, 행정 서류, 뉴스 보도와 문학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구어체는, 모든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일상의 언어이다.<sup>5)</sup> 신할리즈어의 문어체와 구어체는 어휘부터 문법 체계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모든 면에서 상이하다. 그리고 구어체 신할리즈어는 영어와 신할리즈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타밀어에 대해 알아보겠다. 타밀어는 타밀인과 무슬림들의 언어이다. 타밀 민족은 주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00여 년 전에 남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sup>6)</sup>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인도와 고립되어 있었던 탓에 남부 인도 구어체 타밀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타밀어 방언을 형성해 냈다. 타밀어도 신할리즈어와

5) 가이르(Gair, 1968)는 신할리즈 화자들이 사용하는 신할리즈어 유형에는 문어체와 구어체 신할리즈어 사이에 표준 구어체 신할리즈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표준 구어체 신할리즈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어 문법과 문학적인 어휘가 포함된 언어 현상이다.

6)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타밀 민족은 스리랑카 타밀과 인도 타밀로 구별된다. 스리랑카 타밀인들은 상업 목적으로 수백 년 전에 스리랑카로 이주한 종족이며, 인도 타밀로 불리는 타밀인들은 19세기에 차 농장에 노동 목적으로 이주했던 타밀인들의 후손이다.

마찬가지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별되는 양층 언어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구어체 타밀어는 첸타밀(Centami)이라 일컫고, 문어체 타밀어는 코튼타밀 혹은 코카이 타밀(Koṭuntami/Koccai-t-tami)이라고 일컫는다. 전통적인 타밀 문법 학자들은 문어체 타밀어를 늘 강조하였다(Coperahewa, S., 2009). 역사상으로 봤을 때 13세기 이후에는 타밀어가 명성을 누리던 시기였기에 이는 곧, 신할리즈 문화와 언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13세기 이후에 일상생활, 전쟁, 예술과 행정 관련 타밀어 외래어가 신할리즈어에 유입되었다(Coperahewa, S., 2009). 타밀어는 1988년 헌법 개정 시 제13조에 따라 스리랑카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스리랑카에서의 영어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다. 영어는 1796년에 침입자로 들어온 영국인들로 인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1802년에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선포하면서, 영어를 당시 국어로 규정하였으며, 그 후 영어는 행정, 법률, 교육 및 상법 등 모든 분야의 언어가 된다. 19세기의 영어의 도입이 스리랑카에 사회 문화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해방 이후에도 영어에 대한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할리즈, 타밀, 무슬림 및 말레이인들은 영어를 일상 혹은 오락의 언어로 다르게 말하여, 가상의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중산층의 상류층 신할리즈인들과 중산층의 타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구사하였으며, 다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였다. 영어는 당시 농민 계급이 아니었던 스리랑카인들에게 전통적 직업 기반 계급 제도에서 벗어나 교육, 정부, 상업적 고용과 돈을 기반으로 한 계급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였다(Fernando, C., 1970). 현재는 영어가 스리랑카의 공용어 중에 하나이다. 학교에서 제2 언어로 가르치며 주로 교양 있는 사람들 또는 중산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영어는 서로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와의 소통 그리고 지식 교류를

위한 언어로 변신을 하면서 다양한 대중 사이로 점차 퍼져 나갔다, 현재 스리랑카 사회에서 영어는 수익성이 높은 직업과 사회적 명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공식 언어이며, 공공 부문에 취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sup>7)</sup>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릴 적부터 국제 학교로 보내려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롬보 지역 명문 학교나 주요 도시 사립학교에서는 고학년 수업을 영어로 운영한다. 영어의 사회적 위상에 힘입은 국제 학교들은 소도시에서도 인기를 얻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교에서는 영어가 학부 혹은 대학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과학, 수학, 경영학 과정은 물론 일부 사회나 인문학부 과정도 강의를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또는 학문 목적이나 취업 목적을 위한 특수 목적 영어 과정도 학위 수준으로 진행 중이다.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영어 학원 홍보 광고만 봐도 영어에 대한 수요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영어 회화를 위한 학원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인들이 주입시키던 영어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회에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 같은 권리를 가진 자를 폐위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는 자국어만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영어에 대한 ‘까두와(검)’와 같은 강력하고 독특한 신할리즈어만의 은유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는 영어가 가지는 적대감과 괴로움을 뜻한다(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 2015).

스리랑카에는 신할리즈어, 타밀어와 영어 외에 작은 지역 공동체가 사용하는 소수어가 존재한다. 언어학자들은 이와 같은 언어는 멸종될 위기에

7) 영어는 모든 이가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언어이며, 구네티레케(Goonetilleke, 1983)가 말한 것처럼 스리랑카 사회는 영어와 애증의 관계라는 것이다. 즉, 영어는 사회적 유희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좋아하며, 사회의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뜻이다(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 2015).

이른 언어로 칭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소수어에 대한 정책이나 기획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는다(Coperahewa, S., 2009).

**표 2** 스리랑카의 소수어

언어 종류	설명
베다(Vedda)	베다는 스리랑카 원주민의 언어이다. 현대 베다 언어의 어휘와 문법에서 신타리스어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베다 종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 신타리스어 어휘는 원래 베다 언어에서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Coperahewa, S., 2009).
말레이(Malay)	말레이는 0.3%의 소수민족인 말레이인 <sup>8)</sup> 들의 언어이다. 그러나 현재는 말레이가 회화 위주의 사투리로만 사용되며, 말레이인들은 영어, 신타리스어나 타밀어로 업무를 해결한다. 베이케(Bakker, 2006)는 말레이어의 음운론은 타밀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Coperahewa, S., 2009).
로디(Rodi)	로디 혹은 가디(Gadi)로 불리는 낮은 계급의 언어이다. 라가반(Raghavan, 1957)은 로디는 신타리스어와 친밀성이 매우 떨어지는 언어이며, 기밀 언어로 신타리스어가 아닌 어휘를 신타리스어 통사 구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텔루구 혹은 아히쿤티카 (Telugu or Ahikuntika)	스리랑카 집시로 일컫는 이 민족은 피리를 불어 뱀이나 원숭이를 춤추게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의 언어는 인도의 텔루구어의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만 모국어를 사용하며 신타리스인이나 타밀인과 대화할 때는 신타리스어와 타밀어를 사용한다.

### 3.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

현재 스리랑카의 언어 정책은 스리랑카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식민지 시대의 언어 정책을 의논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코퍼라헤와(Coperahewa, 2009)는 처음으로 여론에서 언어가 거론된 시기가 19세기였으며, 따라서 영국 식민 정부가 시행하던 언어 정책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언어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8) 13세기에도 스리랑카에 말레이인들의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역사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말레이종족이 들어온 것은 18세기나 19세기인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인의 통치 기간에 말레이인이나 인도네시아인을 노동자로나 군인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

밝혀내고자 한다.

16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의 통치를 받게 된 스리랑카는 1815년에 영국에 의해 정치 지배권을 빼앗겼고, 이는 1948년에 스리랑카가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505년에 스리랑카를 침략했던 포르투갈인들은 동서 무역의 독점이 목표였다. 포르투갈인들은 교역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역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통제를 확보해야 함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전체 해안 지역에 걸쳐 권력을 확장시켰다. 포르투갈어가 당시 행정언어였으며,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는 포르투갈어와 밀접한 접촉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신할리즈어에 남아 있는 많은 포르투갈 외래어만 봐도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1658년에 네덜란드인에게 해안 지역의 통치권을 뺏기면서 이 지역이 또 한 번의 식민 구역이 되어 버렸다. 네덜란드인 또한 포르투갈인과 마찬가지로 무역과 상업의 독차지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지배는 해안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다 1796년에 영국인들의 침입으로 138년의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1815년에 영국은 마지막 왕국이었던 켄디를 멸망시키고 영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 그 후 곧 영어를 도입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이는 스리랑카의 사회언어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스리랑카의 영어 도입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국 식민 행정과 선교사들의 파견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Coperahewa, S., 2015). 영국의 통치 시작 당시부터 식민 행정인들은 영어와 기독교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최초의 영국 총독인 프레드릭 노스(Fredrick North, 1798-1805)는 통치인의 언어와 종교의 전파가 미래의 큰 이득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여, 엘리트 계급과 영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Ludowyk, 1966). 또한 당시 영국 행정인들은 영국 통치자와 대중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영어에 능통하고 교양 있는 공무원 계층을 창출하면서 영어가 가지는 기능적 가치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1832년에 영국 식민 사무소에서 스리랑카의 행정, 경제와 사회 교육 사정 등을 단행하기 위한 콜브룩(Colebrooke)과 캐머런(Cameron) 두 대표자를 비롯한 영국 정부 심의회를 스리랑카로 파견했다. 이 심의회에서는 스리랑카의 법률 검토와 행정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심의회는 스리랑카에 대한 보고에는 언어 계획에 대한 제안도 함께 포함시켰다. 식민지 시대의 스리랑카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최초의 선언은 실론 정부의 행정 상황에 관한 콜브룩 보고서(Colebrooke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f Ceylon)에서 찾아볼 수 있다(Coperahewa, S., 2015). 보고서에서는 영어가 스리랑카의 공식어로 채택되어야 함을 권유하고 있으며, 중고등 교육에서는 영어를 교육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anagarajah 2005; Gooneratne 1968, Herath, S., 2015에서 재인용). 콜브룩은 영어가 스리랑카인을 발전을 향해 이끌 것으로 확신했던 반면에 현지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으며, 영어 학교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주목했다(Mendis, 1956). 이에 따라 영어로 서구 지식을 전파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대중에게만 전달되었다. 서양화된 엘리트층을 창출하기 위한 영어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들은 식민지 관료제 계급층에서 적은 월급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영어 학교에서 배운 이들에게는 임금이 높은 취업 자리와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반면에 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임금이 낮은 취업 자리만 있었을 뿐 고등 교육의 기회는 매우 희미했다. 문화 제국주의가 식민지 언어 정책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 문화 보급은 영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스리랑카인들은 영어로 교육받은 계층과 자국어 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나누어졌으며, 영어 학습 목적은 분명했다. 식민 이전에 스리랑카 사회는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였다. 농민 계급은 다른 계급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계급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의 계급들은 하찮게 대어져 왔다. 영국 식민

통치의 시작으로 경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으며, 영어가 상업, 행정 및 중등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계기로 영어를 배운 이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으며, 특히, 농민 계급이 아니었던 이들에게는 전통적 직업 기반 계급 제도에서 벗어나 교육, 정부, 상업적 고용과 돈을 기반으로 한 계급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영국 통치 기간에는 선교 활동이 번성하였다. 영국 선교사들은 교육 또는 선교의 목적으로 사전, 어휘집, 문법서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작업을 해 왔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모든 선교 활동 중에 가장 중요했다. 현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언어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어떤 선교사들은 신할리즈어를 배웠으며, 신할리즈어 문법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문학 활동은 근대 신할리즈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즉, 19세기 초반에 발간된 기독교 간행물들은 근대 신할리즈 문학에 큰 자리를 차지하며, 일부 기독교 문학에 나타나는 언어가 신할리즈 산문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재 사전 제작 발전의 시작은 식민지 당시로 추정된다. 이렇듯 인쇄물의 유입은 신할리즈어나 타밀어의 언어 표준화와 문맹률 퇴치에 일조했다(Coperahewa, S., 2009).

영어가 공식어가 되어 호황을 누리던 150년의 기간 동안 신할리즈어와 타밀어에 대한 인식은 쇠퇴했다. 점차 퍼져 가는 위협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신할리즈인들 사이에서 19세기 후반부부터 20세기 초반부 사이에 신할리즈어와 종교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신할리즈·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인쇄술의 도입과 함께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과, 이런 작품을 즐기는 독자들이 생겨났고, 학자, 작가와 시인은 자신들의 생각을 인쇄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렸다. 언어에 대한 충성심은 교육과 정치 제도에서 더욱 강했다. 신할리즈어의 활성화와 현대화가 언어 기획에서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다. 많은 신할리즈어 학자들은 신문, 간행물이나 작품을 통해 신할리즈어

보급에 힘을 쏟았다. 무니다사 쿠마라툰가(Munidasa Cumaratunga, 1887-1944)는 20세기 신할리즈어의 활성화와 보급에 앞장선 위대한 언어학자였으며, 신할리즈어 순화 운동을 수행하여, 신할리즈어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러 언어 기획 활동과 언어학적 연구들은 신할리즈어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 당시 독일 언어학자였던 빌헬름 가이거(Wilhelm Geiger)가 쓴 신할리즈어 문법서인 《신할리즈 문법(Grammar on Sinhala- A grammar of the sinhalese language)》과 실론지사의 왕립 아시아회(Royal Asiatic Society of Ceylon Branch)에서 제작한 《신할리즈어원학 사전(Sinhala Etymological Dictionary)》이 신할리즈어학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1943년에 실론 대학교(University of Ceylon) 동양 언어학부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와 신할리즈어학과로 재편성된 것은 스리랑카 언어학 역사의 중대 사건이었다(Coparehewa, S., 2009).

신할리즈어와 타밀어가 영어로 대체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는 자국어 운동(Swabhasha movement)으로 행정과 교육의 언어였던 영어를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로 대체하자는 압력이었다. 이는 곧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국어를 사용하는 스리랑카인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국어 운동은 신할리즈인의 운동이었으며, 영어로 교육받고 특권을 누리던 이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으며, 영어가 지배하던 공직에서의 중요한 자리를 통제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안을 고려한 중앙 정부 내각에서는 1945년에 신할리즈어와 타밀어를 공식어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조사할 위원회를 임명했다. 결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포되었다.

1. 1957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할리즈어와 타밀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야 한다.
2. 국어 위원회의 임명과 함께 공용어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3. 번역 및 연구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 보고서는 독립 초기에 권고안이 채택되었을 때 국가 공용어의 이중 언어 정책 진화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 4. 해방 이후의 언어 정책과 문제점

1948년에 스리랑카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스리랑카 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언어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독립 이후에는 신할리지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영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국회에 입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Coperehewa, S., 2009). 1951년에는 당시 스리랑카 총독이 3명으로 구성된 공용어 위원회를 임명하여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6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시켰다.

1. 공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마련한다.
2.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를 행정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재정법과 행정 관련 간행물을 신할리지어와 타밀어로 번역한다.
4. 타자수(타이피스트)와 속기자에게 신할리지어와 타밀어 타자 교육을 받도록 한다.
5.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와, 선행 연구 목록과 번역서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그리고 1955년에는 위원회에서 공용어국을 공용어부로 변환시켜 공용어 관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에 국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국어부서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가 공식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1956년에 유명한 정치인이자 자국어 운동가이었던 반다라나이케(S. W. R. D. Bandaranaike)는 선거 운동 도중에 국민 앞에서 ‘당선된다면 24시간 안에 신할리즈어를 국어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후 스리랑카의 새 수상으로 임명받은 반다라나이케는 다수인 신할리즈인을 달래기 위해 1956년 공식어 법률에 따라 1957년에 신할리즈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어 법률은 타밀어를 공식언어 자격에서 배제시켜 타밀인들을 실망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반발하던 타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1958년에 타밀어를 지방 언어로 지정하였으나 이 또한 타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타밀인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 1956년 공식어 법률은 타밀인들의 대학 입학과 직업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대학 입학을 원하던 많은 신할리즈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당시 수상은, 타밀인에게 신할리즈인과 다른 비합리적인 입학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신할리즈인에게 대학 입학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87년에 새로운 헌법 수정으로 타밀어는 다시 공식어의 입지를 되찾게 된다. 즉, 1978년 헌법 수정 제13조에 따라 타밀어는 공식어로, 영어는 연결 언어(link language)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도 타밀어는 타밀인 지배 지역에서만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던 젊은 타밀인들은 타밀 독립 국가인 ‘엘람(Ealam)’ 세우기 위해 나섰다. 1990년에 타밀 해방군들 혹은 엘티티이(LTTE)는 스리랑카 북부 지방과 동부 지방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쥐고 있었다. 그 후 2009년 5월 엘티티이 지도자의 사망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엘티티이와 정부 간의 인종 간 충돌이 계속되었다.

1956년에 제정된 공식어 법률로 신할리츠인들은 오랜 기간 특권을 누렸으나 이는 신할리츠인과 타밀인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되었다. 이제 타밀인들은 외국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국제 연합 기구나 다른 국제 단체를 통해 타밀 지배 지역에서 타밀어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정부를 개입시켜 지방 자치제를 형성하여 타밀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방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콜빈 실바(Colvin R.De Silva)가 말하기를 “두 개의 언어와 한 국가 혹은 한 언어와 두 개의 국가”와 같은 언어 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언은 타밀 사람들의 언어 권리를 확인시키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가 지니고 있는 언어 정책의 문제점은 영국 통치 시대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분할 통치 정책을 따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교육 제도를 운영하였다. 달리 말하여, 타밀인이 살던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를 설립하여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할리츠인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듯,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영국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신할리츠인들과 타밀인들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서로의 말을 배울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나중에 일어났던 인종 갈등이나 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현재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언어 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은 모국어가 아닌 제2의 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법률이 생겨났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국어로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고 대답하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제2언어 학습 정책에서 예외 대상은 아니다. 학교 교사들도 필연적으로 제2언어 능숙도를 개발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초등학교까지는 타밀어를 배우게 된다.

영어 사용의 사회 경제적 이점 때문에 영어가 신할리즈어보다 더 우세한 언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영어와 신할리즈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할리즈어를 더 아끼고 고어가 되지 않도록 신할리즈어에 대한 연구나 신할리즈어 보급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 이후의 스리랑카 언어 정책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언어 정책은 언어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 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1956년의 공식 언어에 대한 정책은 민족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독립 이후 언어 정책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회적, 민족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창출하였다.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보아도 그동안 스리랑카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정치인이었을 뿐 외교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정치인들은 세력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세력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해 왔다. 실권자들이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제2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진정으로 제공한다면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 참고 문헌

- Coperahewa, S.(2009), “The Language Planning Situation in Sri Lanka”,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Vol.10, Routledge.
- Coperahewa, S.(2011), “Colonialism and Problems of Language Policy: Formulation of Colonial Language Policy in Sri Lanka”, 《Sri Lanka Journal of Advanced Social Studies》, Vol.1-1.
- Godakumbure, C. E.(1955), 《Sinhalaese Literature》, Sri Lanka: Colombo Apothecaries.
- Herath, S.(2015), “Language Policy, Ethnic Tensions and linguistic rights in Post war Sri Lanka”, 《Language Policy》, Vol.14. Springer.
- Ranjith, H & Weerasekara, N. S.(2013), “Language Policy Practices and National Integration of Sri Lank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Commerce》, Vol.2, No.6.
- Walisundara, D.C. & Hettiarachchi, S.(2016), “English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Sri Lanka – A Critical Review”, 《English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Asia》, Language Policy Book, Volume.11.
- A Survey of Sinhalese Poetry from Ancient Times to the Modern Period–  
www.lankalibrary.com
- Evolution of the Sinhala Lanaguage– www virtual library Sri Lanka